

창세기 42 장: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가다

6 그 때에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9 그 때에 요셉은 형들을 두고 곧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13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열둘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잃었습니다." 18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소. 21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28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 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얼이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1. 42 장에서는 요셉이 형들과 극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풍년때에 곡식을 비축하였고, 오랜 흉년 중에도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었기에 기근 가운데 가나안에 살던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오게 된 것입니다.
2. 야곱은 사랑하던 라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 중에 요셉을 이미 잃었기에, 사막을 여행해야 하는 위험한 여정에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4 절).
3. 곡식을 구하러 간 형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 절하는데 (6 절), 자신에게 절하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자신이 오래전에 꾸었던 꿈 (창세기 37:5-9)을 기억합니다 (9 절).
4. 베냐민이 보이지 않기에 요셉은 아마 가족들의 이야기를 더 듣기 위해 형들을 첩자들이라고 하며, 그들의 진실을 증명하려면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첩자들로 오해 받고 감옥에 갇힌 형들은, 21-22 절에 보듯이 자신들의 손으로 요셉을 이집트로 팔았던 것을 기억하며, 그 일로 자신들이 벌을 받는 것이라 말합니다.
5. 돌아오는 길에 곡식 자루에 곡식 값으로 낸 돈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자신들이 겪는 이 억울한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말합니다 (28 절). 시므온만 갇혀 있고, 나머지 형들은 자신들이 첩자가 아님을 보이기 위해 요셉이 말한대로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 오기 위해 다시 가나안 집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43 장: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다

9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14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 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 보내 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28 그들은 "총리 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 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34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1. 43 장은 요셉의 형들이 두번째로 이집트에 가게 되는 과정을 적고 있습니다. 첩자가 아님을 보여 주기 위해 요셉이 말한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이에 반대하는 야곱 앞에서 유다가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자기 희생적인 결단(9 절)을 함으로써,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다시 가게 됩니다.
2. 야곱은 베냐민과 아들들을 보내면서 최선을 다하여 이집트의 총리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하여 함께 보내지만, 14 절에서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합니다.
3. 26 절과 28 절에 다시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이 반복하여 나오는데, 요셉이 17 세에 꾸었던 꿈이 22 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을 만나 참을 수 없는 형제의 정을 느낍니다.

창세기 44 장: 잔이 없어지다

30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의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31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32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33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34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차마 볼 수 없습니다."

1. 44 장에서는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넣어 두어 베냐민이 그것을 훔친 것으로 누명을 쓰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서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게 됩니다. 특히 유다는 이 상황에 대해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내셨으니" (16 절)라고 하면서, 베냐민을 위해 요셉에게 탄원하는데,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유다의 진실함과 지혜,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긴 감동적인 탄원이 18 절-34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누명을 쓰고 있는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종으로 머물겠다고 하면서 베냐민을 풀어 주기를 간청합니다 (33 절).